

종합

전남도 외국인 땅 소유 늘었다

1년새 141만5천㎡ 증가... 전국 16.3% 비중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과 해외 교포의 국내 토지취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외국인 소유한 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해외 법인 및 개인투자자들의 토지 매입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땅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보유중인 광주·전남의 토지는 3천574만7천㎡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에 비해 70만9천㎡(2.0%) 늘어난 것으로, 공식 시가로는 2조6천19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남은 외국인이 보유한 땅이 3

천227만8천㎡에 달하면서 1년새 141만5천㎡(4.6%)나 증가했다. 이같은 면적은 전국 외국인 보유 토지의 16.3% 수준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3천471만1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전남의 외국인 토지 비중이 높은 것은 여수와 광양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계 법인 및 개인의 토지 매입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9천816만㎡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10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외국인은 국내의 땅 2천518만㎡를 취득하고 733만㎡를 처분해 1년간 보유 토지가 1천758만㎡(9.9%)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 교포가 전체 외국인 토지 증가 면적의 68.5%를 샀으며, 합작법인(19.1%), 외국인(6.5%), 외국법인(5.8%) 등의 토지 취득이 많았다.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이 70.2%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20.7% ▲상업용 4.3% ▲주거용 2.9%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외국인 토지 면적이 432만8천㎡ 늘어난 것을 비롯, 경기(314만㎡), 경남(261만5천㎡), 강원(122만㎡) 등의 외국인 땅이 많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전남에 이어 경북(2천757만9천㎡), 강원(1천830만7천㎡), 충남(1천617만7천㎡)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남도국제교육원 개원 남도국제교육원이 22일 전남도립 남도대학 장흥캠퍼스에서 문을 연 가운데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박준영 도지사(사진 왼쪽), 유제원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 등이 교육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영여 연수 및 외국어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남도국제교육원(NIEC·Namdo International English Center)은 남도대학교와 KT 등이 50억원을 공동투자해 세운 학교 기업이다.

반찬, 손님 수 만큼 따로 국물은 각자 덜어 먹게 전남도, 음식문화 개선 나서

“반찬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손님 수에 맞게 따로 차려 내고, 찌개 등 국물도 국자로 각자 덜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전남도가 한 그릇에서 국물을 같이 떠먹거나 같은 반찬 그릇을 사용하는 등 외국인 등에게 불결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비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에 나섰다.

전남도는 22일 “남도의 푸짐한 상차림으로 발생하는 과소비적이고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남도 좋은식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성화면에서도 깨끗하고 맛깔스런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모범음식점 76곳을 선정해 개인별 복합 반찬그릇과 손가락 받침대 등을 제공한다.

또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과 음식문화 개선 실천 희망업소를 위주로 10곳씩을 선정해 해당 음식점의 경영진단, 좋은식단상차림 개선, 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이승욱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며 “TV 홍보와 함께 각종 교육을 할 때에도 DVD 등 관련 자료를 이용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靑 비서관 39명 인사

호남 출신 추부길씨 등 6명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새 정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기획조정 비서관에 박영준 전 서울시 정무담당 국장을 내정하는 등 42명 비서관 자리 중 39명을 임명, 발표했다.

국정기획수석실 방송통신 비서관, 정무수석실 정무2 비서관, 민정수석실 법무 비서관 등 3자리는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임명된 비서관 중 호남 출신은 김백준(익산)씨를 비롯, 추부길(고흥) 홍보기획 비서관, 장다사(김제) 정무1비서관, 모강인(함평) 치안비서관, 김재신(부안) 외교비서관, 김주홍(전주) 문화예술포럼비서관 등 6명이다.

광주교고와 전남대를 졸업하고 안양대학교 수교수인 추부길씨는 이 당선인 대선경선캠프 한반도대운추진본부 부본부장으로 역할을 하다 이번에 발탁됐다.

또 서울·경기 출신 17명, 영남 출신 10명, 충청 출신 5명, 강원·제주 출신 각 1명 등이었다.

한편 대변인실의 경우 김은혜 전 MBC 기자가 1부대변인에 임명됐고, 배용수 전 국회도서관장이 2부대변인에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신 승부의 대척점에 서지 않을 것”

■ 퇴임 이틀 앞둔 盧 대통령 소회

“뉴스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아”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을 사흘 앞둔 22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춘추관을 방문해 지난 5년간의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사실상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춘추관을 찾은 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무척 힘들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5년간의 소회와 향후 일정 등을 간략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저는 이제 고향으로, 일반 국민으로 돌아간다”며 “1987년 이전,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를 시작하기 전의 시기나 대통령에 당선될 때 세계 힘이 됐던 조금 발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언론과 빚어온 갈등을 떠올린 듯 “대통령을 그만두면 제일 좋은 것은 뉴스를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제 (언론과)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어딘가 방향을 함께 가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제 화장을 안 해도 된다”며 “(화장을 하면) 피부에 느낌이 안 좋아 화장을 싫어하는데, 대통령은 항상 무대 위에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대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별한 긴장과 연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제 편안해도 돼서 아주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자유가 아주 큰 행복”이라며 “또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머리로 적게 쓰고 사적으로 살아보고 싶은데...”라고 희망을 피력하면서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전환은 마주서서 대결하고 승부를 항상 맺어나

가야 되는 승부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라며 “착한 소리도 하고 군소리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그 승부의 대척점에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점이 세계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의를 뒤로 미루면 전략적으로도 좋은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이익을 뒤로 미루다 보니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 정치인으로서 큰 성공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을 취재해온 기자들에게 “뜻을 같은 방향으로 두고 만났으면 좋겠다. 정서적으로 통하는 데를 만들어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비서실장 주최로 열린 출입기자단 송별 오찬에 잠깐 격려하는 형식으로 방문한 노 대통령은 환송 꽃다발을 전달 받은 뒤 기자들과 소주폭탄주로 건배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시설

하계 U대회 광주 유치에 역량 결집하자

세계 최대의 ‘대학생 스포츠 제전’인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개최지 결정(5월31일)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광주시와 유치단은 지난 13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하계U대회는 단순한 대학생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U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되면 광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인프라 확충, 국제도시 도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특히 생산유발 9천500억원, 부가가치 4천500억원, 고용유발 3만명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U대회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계U대회 광주유치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미 러시아 카잔

을 비롯해 5개국 7개 도시가 유치 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계U대회가 개최국 및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경쟁도시들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11년 대회가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에서 열리고 한국이 최근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휩쓸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치밀한 유치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대회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관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계U대회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여수엑스포에 비해 떨어진다. 광주시와 유치단은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해 대회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도부터 높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도시로의 도약과 중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2013년 하계U대회 유치가 모든 지역역량을 모을 때다.

장관 후보자 투기·표절의혹 철저히 따져야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규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 15명의 평균 재산이 39억원대로 드러나면서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오는 27~28일 열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의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훈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큰 아들 명의로 서울, 부산, 제주, 경북 등 전국 5개 지역에 아파트, 단독주택, 공장, 임야, 대지 등 40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140억원대에 달한다. 또 후보자 13명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버블 7’(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지역에 주택 및 아파트, 오피스텔과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오죽하면 ‘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합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집을 몇 채씩 소유하고 곳곳에 땅을 사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부동산 부자들로 구성된 내각이 얼마나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지도 의문이다.

일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에 대한 논란 표절과 가족 이중국적, 공공 유용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의 총체적인 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형국이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코소보 독립 반대 시위대 美 대사관에 불 질러

코소보 독립 선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 양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3천여명의 시위대가 코소보 독립을 지지한 미국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베오그라드 시내 미국 대사관으로 진출, 건물에 불을 붙여 점거한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렀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당시 미국 대사관은 문을 닫은 상태로 몇몇 경비대원만이 지키고 있었고 경찰은 건물에 대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위대는 대사관 사무실을 돌며 불을 질렀고 각종 서류와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를 창문 밖으로 내던졌으며 창문틀까지 빼내 불태웠다.

대사관 내부와 정문 쪽에서는 검은 연기

가 치솟아 올랐고 소방대가 뒤늦게 출동해 진화작업을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시위대 중 한 명은 대사관 1층 국기 게양대에 올라가 성조기를 찢는 뒤 그 자리에 세르비아 국기를 대신 뿜는다는 하문 대사관 정문 등 외곽에서는 약 1천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세르비아, 세르비아’를 연호했다.

미국 대사관을 점거한 시위대는 10여분 뒤 진압 경찰이 출동, 최루탄을 쏘자 건물들을 빠져나와 길거리로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약 30명이 부상했다.

코소보는 지난 17일 독립을 선언했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그 지위를 인정했지만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유엔이 명시한 국제법 위반이며 세계 각국의 분리·독립운동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 물가상승률 열무·밀가루 1·2위

지난 5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은 무엇일까.

22일 한국은행 통계청을 이용해 올해 1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9개 품목의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열무와 밀가루 가격이 2003년 1월에 비해 각각 116.4%와 103.1% 올라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다.

이외 금반지(99.3%), 부침가루(92.5%), 토마토(91.9%), 경유(91.3%), 자동차용 LPG(70.0%)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

다. 열무는 수요에 비해 생산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밀가루는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반지는 지난 몇 년간 달러와 약세 현상으로 인해 금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최근에는 세계 금값의 불안과 맞물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입정 작아지긴 하겠네요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5년 만에 처음...무역 '적신회'

무역수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주요 원자재와 곡물의 국제 가격이 급등해서 지난 10년 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연간 무역흑자 기조에 적신회가 커졌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179억5천69만 달러였고 같은 기간 수입은 218억2천184만 달러로 38억7천115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아직 2월이 끝나려면 9월 정도가 남아있어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적자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 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적자가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별 무역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12월 8억6천600만 달러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 1월엔 37억 달러로 적자폭이 커지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월별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3년 1~3월이 마지막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 수출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월말에는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올해 2월은 29일만에 전년보다 하루가 많아 적자 규모가 1월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와 콩·밀 등 곡물의 국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이 대폭 늘어나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1월의 품목별 수입동향을 보면 원유 수입은 78.0%, 원유를 포함한 전체 원자재 수입은 43.5%, 곡물 수입은 32.0% 각각 늘어났다.

/연합뉴스